

보고 느끼는 체험적 성교육의 장

교 실에서
다소 상

으로 된 각종
콘DOM을 보면서

투적인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의 틀을 벗어나 직접 참여하면서 보고 느끼는 체험적 성교육의 장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해 8월 5일~8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열렸다.

1만여 명의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세계 청소년 평화캠프에서 열린 청소년 성교육 체험전시관에서는 피임도구, 태아모형, 남녀생식기 모형 등 전시코너, 성교육게임과 비디오 자료 열람코너, 성지식퀴즈, 스티커설문 등의 참여활동 코너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생동적인 성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은 꽃이나 사탕모양

콘DOM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고 성교육 만화비디오나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이 가장 흥미로워 했던 것은 스티커 설문과 임신체험복, 임신에 대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신체험복을 입어본 남학생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실감하였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기도 하였다. 스티커 설문결과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설문에 대해 약 47%만이 '그렇지 않다' 응답하여 과거에 비해 성에 대해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청소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김민서**



(좌) 피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우) 전시관을 방문한 걸스카우트 대원들.
(아래 좌) 전시관을 관람한 대원이 감상 소감을 붙이는 장면.
(아래 우) 전시관 앞에 모인 대원들과 성교육만화를 읽는 모습.